

향토작가 박주남이 그린 불교

3월 29일까지
보령 탑 갤러리서 불화전

구상과 비구상의 작업과 함께 산수·불화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적으로 선보인 박주남 작가가 3월 29일까지 충남 보령 갤러리에서 불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주남 작가는 '관세음의 노래'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 '월인천강지곡' '법계' '아미타 정토삼부경' 등 20여 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전시에서 박주남 작가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나 도피가 아닌 중도적인 조화의 세계를 그의 작품에서 구현하고자했다. 그는 불교와 노장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삶과 예술적 합일을 추구한다.

박주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불화에서 채색과 필선에 의한 수묵 표현방식을 주된 표현기법으로 불화를 그렸다. 화면을 분할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형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박주남 작가는 3-4평 남짓한 화실에서 보령의 산과 강을 무대로 화폭을 그리는 향토작가이기도 하다.

박 작가는 덩수룩한 수염에 전통 개량한 복을 입고 도인처럼 생활한다. 온화하고 친화감 있는 작가의 성품처럼 그가 추구하는 화폭의 세계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깊은 섬처럼 늘 새롭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박주남 작가는 3-4평 남짓한 화실에서 보령의 산과 강을 무대



관세음의노래, 한지 수묵 채색



관세음의노래, 88×55cm, 한지 수묵 채색



월인천강지곡, 70×55cm, 한지 수묵 채색

불교·노장사상 추구한 증진작가 '관세음의 노래' '영산회상도' 등 중도적인 초월의 세계 수묵으로

이 발표하고 있다. 박 작가는 전통적으로 궁궐이나 사찰에 채색(彩設)되던 단청도 직접 목조건축물의 부재에 출초, 채색해 제시함으로써 전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주남 작가는 2008년에 전국의 명승지로 알려진 '달이 솟는 도갑사', '갈갈산 장곡사', '조계산 대각암', '상왕산 개심사',

'신원사의 봄' 등 주로 사찰을 작품소재로 그렸다.

특히 '달산도 숲' 같은 그림은 필묵의 파격성과 절제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가 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화상처럼 사실주의에 충실함을 엿볼 수 있어 신선함을 더했다.

박 화백은 "예술세계는 자연의 진실을 깨고자 하는 작업과 같다. 예리한 붓끝으로 가슴을 후비듯 섬세하고 치밀한 혼신의 정열이 필요하다"고 "이번 전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불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조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천경해원 선사의 '도관 스님에게 차운함 [次道寬上人]

공하지 않은데 공하다

我今非有有 (아금비유유)
君亦不空空 (군역불공공)
空有雙非道 (공유쌍비도)
休將二見封 (휴장이견봉)

나는 지금 있지 않은데 있고
그대 또한 공하지 않은데 공하다.
공과 유 모두 도가 아니니
두 소견으로 봉하지 말라

천경해원(天鏡海源; 1691~1770) 스님은 대둔사에 주로 주석했다. 스님은 글 잘하는 사람으로 서울에까지 소문났고 시에도 조예가 깊어 천재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선'은 깨달아 들어가 있는 것이요 시는 신해가 귀한 것'이라 하여 선시일여의 시관을 피력했다. 이 시는 공(空)과 유(有)의 이집(二執)을 파해 두 번에 떨어지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용수는 <중론송(中論頌)>에서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한 것이지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가명을 세워 공이라 한다고 공의 도리를 설명했다. 1·2구에서 보여주는 공의 실체이기도 하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성립돼 존재한다. 이 유(有)는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본래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스님은 공과 유는 상즉의 관계로서 공은 유이기 때문에 참된 공으로 성립되며 유는 공에 의해 그 실체를 확보하는 '공유쌍존(空有雙存)'을 우선 읊었다. 그러나 이 이집(二

執)을 벗어난 공과 유일지라도 모두 도가 아닌 것이기에 '공과 유를 쌍으로 봉하지 말라'는 '공유쌍견(空有雙遣)'을 제시해 진공묘유(真空妙有)조차도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하다든가 있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이요, 도와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비유유'와 '불공공'이라는 언어의 중첩을 사용해 부정을 통한 절대공정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비(非)·불(不)과 쌍(雙)·이(二)의 동의어어(同意異語)를 같은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중첩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해소시키기도 했다. 또한 유유와 공공의 같은 자리 배치는 문자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내용이 비록 선리적이기는 하나 직관이 어우러져 있는 오처(悟處)와 신해(神解)가 일어(一如)한 맛을 보여주었다.

원법 스님(운문사 종장·조계종 교수이사리)



선스페이스 박경범 추천작가전

'Encounter with God' 3월 29일까지

"나는 산산이 부서진 인간상을 다시 회복하고 지난 수천년 동안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인류의 복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신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나를 보는 것인가?"

삼청동 스페이스+은 3월 추천작가전으로 박경범 작가의 조각전 'Encounter with God'을 3월 29일까지 연다.

박경범 작가는 개인전에서 신과 인간의 기원 및 우주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조각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경범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조소



'Encounter with God', 브론즈, 2011년

과와 동국대학교원을 졸업했다. 1985년부터 수많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끊임없이 대중 앞에 선보여 왔다.

각 전시 작품은 신들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각가 박경범은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인간의 심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박경범 작가는 "문명 발전에 많은 문제들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섹스 마약' 등이 이제 현대인들의 이상과 종교처럼 인식돼 가는 현실을 고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아시아지역 독특한 나무문화 전시

7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네팔 대만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불교국가들 비롯한 동남·북아지역의 목조유물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2년 7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가네코 가즈시게실에서 테마전 '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시는 일본의 가네코 가즈시게 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아시아 민족조형품 1000여 점 중에서 선별한 목조형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가네코 가즈시게 선생(1925년 생)은 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아시아 민족조형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수집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에서는 아시아 각 지역의 독특한 나무문화를 통해 아시아인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돼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타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물들과 네팔 티베트 중국 타이완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물들을 소개한다.

제1부 '나무와 함께 한 아시아인'에서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생활용품인 나무그릇과 함께 예술품과 독특한 철기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된다.

제2부 '나무에 담긴 신앙과 종교'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에 기반을 둔 토속 신앙과 함께 힌두교·불교·이슬람교 등이 공존하는 다문

화 지역인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신들이 여러 모습으로 그들 곁을 지켜왔다. 아시아인들은 나무 자체를 영혼을 가진 정령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나무에 신의 이미지를 담기도 했다. 불상과 경전을 담은 상자, 부처님에게 바치는 공양구 등도 나무로 제작했는데, 나무 바탕 위에 화려한 옷칠과 금칠을 하고 다양한 무늬와 표현기법으로 장식했다. 또한 종교 관련 이야기들을 담은 병풍 및 벽화 등도 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의 각 지역에 뿌리내린 독특한 목조문화와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여러 민족의 조형의식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나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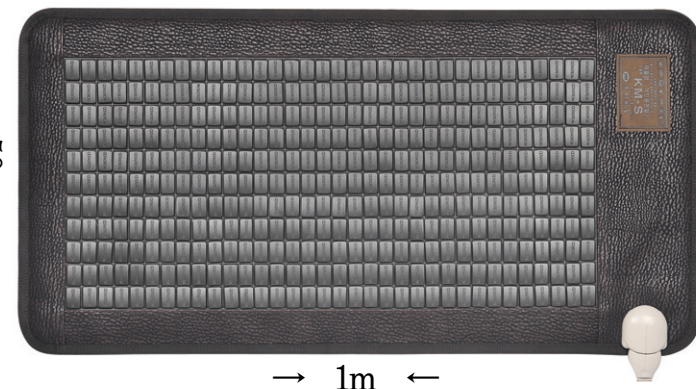
불탑의 형태를 본떠 만든 불교 공양구인 흑칠 주철 합(黑漆朱漆釜). 캄보디아 크놈펜 크메르족 19세기, 높이 3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숨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개) 발은 따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켜주세요!**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조원: (주)국민메이텔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판매원: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炆石)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율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기를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초의 옥보다 3배이상 많은 기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역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균력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저울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갈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도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저혈압이 임하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저혈압의 영감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영계 있던 저혈압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역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함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균력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개를 함께 드립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기상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필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